

(월간빛 416호) 사회복지 현장에서

## 사랑실천(Caritas)은 먼저 정의를 요구한다

글 도건창 세례자요한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소장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싶다.”,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은 7시까지”, “나만의 냉장고가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음료, 과자, 빵 등) 보관하기”, “소일거리 갖기와 텃밭 화단 가꾸기”,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을 자유로이 외출해서 구매하고 싶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대로 놔두기”,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머리 감을 때 린스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식사 할 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의사를 존중하고 늦어도 내가 결정하고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외부에서)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은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다섯 달을 살아야 한다면, 꼭 요청할 다섯 가지?”라는 질문에 노숙인 주거시설 직원들이 한 대답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요청을 할 것이다. 이 요청이 채워질 수 없는 꿈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실패하여 다시 시설에 들어올망정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당연히 따라온다.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히 가지는 기대는 인간 본성이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의가 인간 “본성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가톨릭교회교리서』, 1928항)이라면 이런 삶의 조건을 초래하는 정책과 법률은 정의로울 수 없다.



많은 카리타스 동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며 먼 곳을 바라보든지 고개를 떨구게 된다. 가끔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런 현실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고 사회복지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나름대로 애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쩌지?’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먼저 그런 삶의 조건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다음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보려 애쓰다 지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지치게 만드는 조건이 변화 없이 계속되면 체념하게 된다. 체념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해지면 불의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지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도 그들만 책임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찰되지 않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노숙인 복지시설 주민들을 사회 밖으로 쫓아낸 우리 사회의 문화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요청을 기록한 직원들도 그 집 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작업을 했던 주거시설 주민 대부분은 먹고 입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다. 그런데 노숙인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50명에 생활지도원 1명만 배치된다. 도움 사람은 적는데 도움 받을 사람은 많으니 시간에 쫓기고 개인 바람을 존중할 여유가 없다. 외부 조건은 안 바뀌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서와 결과보고는 해야 한다. 정의롭지 않은 현실은 실제 삶에서보다 서류 위에서 개선되고 있다. 이른바 “A4복지”다. 이 세미나 참여 동료들은 주민들에게 그들이 본래 가진 권리를 실제로 되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주민 10명당 1명의 생활지도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주거시설로 바꾸어 달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등의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했다. 나라와 사회가 이 시설 주민에게 비슷한 처지인 장애인 거주시설 주민보다 덜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한 것이다. 동료들의 궁극적인 꿈은 주민들이 시설을 떠나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자립생활이 물고기라면 경제적 빈부와 신체적, 정신적 강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마을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 세미나를 마치며 동료들이 가톨릭노숙인복지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노숙인 주거시설 주민들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써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숙인 시설에 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상황을 알려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하자고 했다.

2014년에 나온 국제 카리타스 윤리강령은 가톨릭교회 사랑실천 조직(Caritas)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첫 가치로 ‘정의’를 꼽고 있다. 정의란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도움을 주면서, 가난과 소외로 내모는 원인에 항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동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숙인 주거시설 주민들 상황을 더 정의롭게 바꾸는 노력은 그들을 옹호하는 온라인 의견에 ‘좋아요’ 누르기와 직접 글 혹은 댓글 올리기, 관련 여론조사 때 의견 표명하기, 그들의 사정을 더 잘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알리고 그렇게 투표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 등을 통해 정의 구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실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 231-233항)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천사 같은 순수주의, 상대주의의 독재, 공허한 미사여구,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반역사적 근본주의, 선의 없는 도덕주의, 지혜가 없는 지성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바로 여기

에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하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의 기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사회에 알려 사회 전체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회 지도자가 그들에게 더 쉽고 완전하게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장려하고 기회와 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더 기쁜 일이다. 교회 모든 구성원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여겨 듣고 함께 고민한 후에 각자가 원하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숙인 주거시설 주민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초대인 동시에 그들의 의무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사랑의 문명(civilization of love)”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고, 사랑은 정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 부당청구 과태료 500만 원!

### - 장기요양시설 현장에서 공동선(The common good)

글 도건창 세례자요한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소장



“부당청구 과태료를 500만원 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여섯 해 전 대구 시내에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서 사무국 직원들이 주고받은 말이다. 한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 목욕을 시켜 드리려는데 한사코 방문목욕용 욕조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당신이 평소에 목욕하던 큰 대야에서 목욕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한참을 씨름하다 큰 대야에서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점점 온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그것을 알아내어 부당청구라고 한 것이다. 규정된 욕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목욕을 시켜 드렸기 때문이다.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율이 갑을 이길 재간이 없다. 행정소송을 하려면 과태료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이긴다고 해도 뒷감당이 안 된다.



작년에 진주에서는 더 답답한 일이 있었다. 53년간 그 지역에서 무의탁 어르신, 장애를 가진 사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성심원이 2008년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프란치스코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바뀌어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모셨다. 2015년 3월 진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다. 현지조사 과정 중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주방 조리원이나 위생원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했고,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이 없는 기간에 주방에서 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라고 한다. 밥을 할 사람이 없어 다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밥을 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억 1천 8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진주시는 그 금액에 따라 프란치스코 전문요양원에 82일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피하려면 환수금의 5배인 16억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 요양원을 운영하던 작은 형제회는 시설을 폐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도 고압적이다. 조사 받는 시설에 현지조사팀이 오면 한쪽에서는 출근부, 급식일지, 시설일지 등 관계 장부를 대조해가며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몇 명의 직원을 무작위로 지목해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한 일을 낱알이 이야기하거나 적도록 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자기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도와준 적이 있으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이고 부당청구가 된다. 사정이 그러니 장기요양시설이나 기관에서는 한 직원이 법에 따라 하도록 규정된 일 외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지시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다면 현지조사를 왔을 때 직원들에게 말맞추기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 어르신을 장기요양시설로 모시려고 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요양병원은 많다. 그런데 병원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졌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대개 그렇게 생각한다. 요양병원은 오래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쉽게 가려면 여성 어르신이라야 한다. 남성 어르신이라면, 체격이라도 작고 가벼워야 한다. 이도저도 안 되면 늘 웃는 인상, 편안한 목소리, 고분고분한 성격 정도는 갖추어야 요양원에 ‘합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가는 그 어르신이 수발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치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체중 40kg에 신변처리는 스스로 하려 하시고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친절한 할머니이든, 체중 85kg에 일상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야 만족하는 할아버지라도 장기요양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수가를 적용 받는다.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싶어 할까?

정부와 언론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가장 자주 다루는 주제는 부정수급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에 1,028개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조사받은 기관 가운데 75.3%인 774개 시설에서 부정이 드러났으며, 그 부정금액도 235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사회복지계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감독과 통제 중심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마저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시장화된 장기요양사업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분

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가톨릭신자인 어르신이 신앙생활을 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은 바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익과 편리함만 추구하는 개인의 부정과 나태 탓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 때문에 사회제도, 정책,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도 개인이 인간의 근본 본성에 따라 행동하기 쉽도록 바뀌어야 한다.

사회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공동선(The common good)’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26항에서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로 정의한 공동선은 인간의 자기완성, 곧 인간다운 삶을 더 쉽고, 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사회 환경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를 앞의 예에 적용하면 어르신은 지역, 종교, 문화를 비롯해 지금까지 살아 온 일상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이 지역에 있고, 가족이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르신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근무자가 어르신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통제보다 지원, 감독보다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경제성 효율성과 어르신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수가정책도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과 조사 이전에 무엇이, 왜 부정수급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도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정화 노력을 해야 한다. 공동선에 관한 교회 가르침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 문제에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와 필요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 교령』 2항은 그리스도인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했다. 현세 질서에 복음을 침투시킨다는 표현은 우리 각자가 일하고 사는 곳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여기에서 질서란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관습, 규범, 법률, 제도, 정책 등을 의미한다. 결국 복음화와 공동선,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과 어르신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직업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

(월간빛 418호) 사회복지 현장에서

## 내 추억, 고향, 이웃의 가격은? - 전인적 인간개발(integral human development)

글 도건창 세례자요한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소장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사는 만촌동으로 이사를 왔다. 한동안 마당 구석 오동나무가 보고 싶어 옛집을 기웃거렸다. 이사 오기 두 해 전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주워와 “뿌리가 많이 상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심은 나무다. 죽을까 마음 졸인 탓인지 잘 자라는 게 고마웠고, 볼 수 없으니 더 그리웠다. 그 나무는 신천동에서 보낸 내 유년시절의 상징이다. 벌써 40년이 지나 그 나무도, 수확이 끝난 후 남은 무를 캐먹고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밤길을 뒤따라오던 달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밭도, 물놀이하던 개천도 송두리째 없어졌다. 그 자리에는 고층아파트가 서 있다. 추억만이 아니라 그 시절 나와 오늘의 나를 하나로 엮어주는 삶의 과정이 토막토막 잘라진 건 아닐까?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추억을 나눈 친구, 이웃을 우리 스스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도심 재개발 정책이다.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고 위험하면 수리하거나 새 집을 지어야 한다. 새 집이 현 집보다 편리하고 비싼 것도 당연하다. 오른 집값 덕택에 부자가 되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도심 재개발 정책이 도마에 올랐던 이유는 집값 상승의 대가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세입자나 새로운 고층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없는 이웃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2008년 서울시 뉴타운 정책이 한창일 때 서울 난곡 밤골 마을에 살던 주민의 말이다. “40년 넘게 살았는데 헤어지니까 안 좋지. 늙어 죽도록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 벌이도 조금 인데, 아파트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고. 이곳이 난방이 안 돼서 석유를 때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도시가스만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 살았으면 해요.”<sup>1)</sup> 더 오른 집값이나 편리함을 위해 뒤로 미루어두거나 포기한 것의 가격이 만만치 않음을 발견한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중요한 것을 덜 희생하는 재개발은 없을까?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보방(Vauban) 신도시가 있다. 주민들이 함께 프랑스군 기갑부대가 철수한 병영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고민했다. 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도시, 휴양지 같은 편안한 공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도시를 꿈꿨다. 생태 친화적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으며 지역중심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소셜 에콜로지(social oecology)를 담은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다.

생태를 보존하려고 병영에 있던 가로수를 한 그루도 베지 않고 도시를 설계했다.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축자재를 이용했다. 빗물과 생활배수를 다시 사용하고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지를 넓게 확보했다. 자동차 없는 도시가 되도록 단독주택 대신 4층 공동주택을 지어 적정 인구밀도를 유지해 주택단지에 전차가 들어오게 했다. 모든 집에서 전차 정류장까지 350m 이상 떨어지지 않게 설계하고, 신도시 입구에 대형 공용주차장을 설치했다. 더불어 살기 위해 시 당국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대신 주민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저가주택을 구상했다. 4층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가구가 함께 의논해 자기들만의 개성을 지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조언해주었다. 입주 전부터 이웃끼리 사귀어 젊은 부부들이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스스럼없이 부탁할 수 있게 되었다. 차가 다니지 않는 길과 마을 곳곳에 있는 소규모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왕국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려한 무장애(barrier free) 시설을 넓히고, 주민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단지 안에 은행이나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시스템을 만들어 투기나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 재택근무나 일자리 나누기로 새로운 일자리를 촉진하고, 가까운 지역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 업자, 고단열 주택 설계회사, 가전수리공장, 재활용업자 등 미래형 상공업자를 유치했다. 건축자재나 자원, 식품 등을 글로벌 시장이 아닌 지역에서 조달했다. 이렇게 주민이 자기가 살고 싶은 삶과 주택단지가 일치하도록 지었다. 삶의 질과 아름다움이 담긴,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1) 출처: 오마이뉴스 “우리 동네 난곡 - 그 많은 이웃사촌은 어디로 갔나?” <http://blog.ohmynews.com/nangok/231759>



지은 집, 우리가 만든 도시'라는 애착심과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을 체험하고 서로 소통을 촉진하는 도시를 만들어간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도시 재개발 정책도 많이 달라졌다. 2006년 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최근 서울형 도심 재개발 사업까지 재개발의 목적을 돈에서 주민의 삶의 질로 바꾸어 가고 있다. 가난한 동네를 철거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온 역량을 동원해 전기, 가스, 수도 등 기초시설을 개선하고, 도로와 주차장, 놀이터를 마련하며, 동네에 벽화를 그리고, 빈 집을 사서 공동 공간을 확보하며, 학교 도서관도 짓고 있다. 그래서 주민이 계속 살고픈 마음이 드는 마을이 되도록 하는 개발을 한다.

바로 6세 교황은 교회가 사람이 가진 “희망을 함께 품고 있으며 때때로 그들의 희망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그들이 충분한 진보를 성취하도록” 도와야 한다(회칙 『민족들의 발전』, 1967, 13항)고 했다. 또 올바른 발전은 “한 인간 전체와 전 인류의 완전한 발전”(같은 책, 42항)으로서 “인간답지 못한 생활조건에서 더욱 인간다운 조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같은 책 20항 참조) 본당과 가톨릭 사회복지·자원봉사 조직 역시 가정, 단체, 사회에서 영적, 심리적, 감성적, 물리적, 물질적, 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측면에서 더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만들어가는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능동적 참여로 통합적 인간개발이 모든 사람의 연대책임을 향한 부르심(회칙 『진리 안의 사랑』, 2009, 11항 참조)임을 일깨우고, 올바른 구호, 재할, 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단체, 지식, 기술, 체계 사이에 강력하고 한결같은 연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 2006, 통합적인 인간개발 참조) 이 참여와 연대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시간, 열정과 돈이 우리 삶의 소중한 추억, 고향, 이웃에 우리가 매긴 가격이다.

(월간빛 419호) 사회복지 현장에서

## 연민·함께 아파하기(Compassion)에서 시작되는 사랑실천(Caritas)

글 도건창 세례자요한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소장



외부 타일이 떨어져 얼룩진 밝은 연노란색 건물 입구는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정문 옆에 임시로 낸 문으로 들어갔다. 영하 5~6도 기온에 바닷바람이 차가워 귀마개를 하고 목도리를 여미면서 주변을 보니 본 건물 뒤흘 벽에도 여기저기 타일이 떨어져 있고, 벌어진 틈도 보인다. 건물 뒤편 숲속에 회색 컨테이너 10여 개가 띄엄띄엄 놓여 있다. 열기설기 연결된 전기선을 보고 그곳이 사람이 사는 곳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임시 사무실을 가리키는 팻말을 보고 사무실을 찾아가다가 목도리를 단단히 차리고 플라스틱 물통으로 물을 길어오는 남자 분을 만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임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안내로 붉은 벽돌로 지은 단층집으로 갔다. 회색 체육복에 색이 바랜 청회색 조끼를 걸친 반백의 남자분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낮익은 분이다. “어서 오세요.”하며 우리 일행을 당신이 쓰는 방으로 안내했다. 붉은색이 섞인 아크릴 담요 한 장이 덮여있는 고동색 전기장판과 벽에 걸린 그림 몇 점 외에는 가구도 없는 단출한 이 방에 사는 사람이 들꽃마을을 세운 최영배 신부님이다. 28년 전 고령성당에서 뵈었을 때 신부님은 성당 마당에 천막을 치고 할아버지 몇 분과 같이 살고 있었다.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 한 분을 보고 그냥 두면 돌아가실 것 같아 모셔 와 보살펴 드렸더니 나중에 그분이 길에서 사는 다른 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신부님은 여전히 그분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그분들과 함께 살고 계셨다.

돌아보면 우리 교구 사랑실천 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시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겨났다. 전쟁 후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를 찾아온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다. 수지 영거 여사와 마리아 하이센베르거 여사는 어느 저녁 남의 집 문간에서 울고 있는 구두담이 아이를 만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집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대구 SOS어린이마을과 가톨릭 푸름터가 생겨났다. SOS어린이마을에서 그분들과 함께 일했던 잉에 엘렌캠프(한국명 : 옥잉애) 여사는 동촌에서 시내 중심가로 나오는 택시에서 운전석 옆에 앉은 한 꼬마 아이를 보았다. 햇빛에 그을려 새카만 그 아이가 누군지 기사님에게 물었다. 기사님은 아들인데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함께 다닌다고 대답했다. 그 만남이 엘렌캠프 여사가 부모가 있어도 자녀를 돌볼 상황이 안 되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소화어린이집을 세우도록 이끌었다.

마산 가포 국립요양원에서 결핵으로 요양하던 김동한 신부님은 요양원 주변에서 행상을 하던 여인이 쪽방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일이 나중에 그가 대구요양원을 인수해 운영하도록 만들었다. 고령 밀알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사는 시설을 눈 여겨 보던 박병기 신부님은 운영난에 빠진 그 시설을 인수하고 싶었다. 그러나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반대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님은 근무를 마친 직원들을 차에 태우고 그 시설로 갔다. 그들은 어두침침한 블록 건물 중앙집통에서 라면이 다 끓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설 주민들을 보았다. 조금 후 밖으로 나온 신부님은 직원들에게 “이런 데도 인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고, 그들에게 동의를 얻어냈다. 그렇게 국제재활원(현 성요셉재활원)을 인수했다.

그 만남의 주인공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나쳐 가지 않고 다가가 함께 아파한 사람들이다. 함께 아파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함께 아파하기(Compassion)’는 인간다운 도움을 위해, 특히 그리스도교답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고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루카 10.29-37)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에게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 대목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말마디는 사람의 내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내장이 끊어질 듯 아픔을 느꼈다는 뜻이다. 이처럼 함께 아파하려면 상대방과 가깝게 있어야 한다. 고통 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왜냐하면 눈앞에 고통이 보여야 실제로 함께 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함께 아파하기는 자신보다 열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며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감을 ‘자기 탓 없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연령, 고유성, 습관, 사회적 지위나 출신이 비슷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악을 보고 느끼는 고통의 한 종류’라고 했다.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의 함께 아파하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슷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이웃, 고향 사람, 같은 민족, 같은 성별,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같은 인간이라는 차원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의 함께 아파하기는 ‘사람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 외에 어떤 경계나 조건도 없다. 사마리아 사람의 함께 아파하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도우려는 동기를 준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가여워하는 마음과 다르다.<sup>1)</sup> 이런 함께 아파하기는 이성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락탄티우스(Lactantius)는 그리스도교의 함께 아파하기를 인간 삶에 관한 이성을 거의 온전히 담고 있는 감정으로 보았다. 그 감정은 다른 동물과 달리 홀로 생존하기 힘든 인간의 공생함을 서로 돕는 것을 통해 극복해 나가도록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기를 포기하면 우리 삶이 짐승처럼 되어 버린다고 했다.<sup>2)</sup> 곧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할 덕행이다.

우리 교구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는 자신을 탄생시킨 ‘함께 아파하기’를 얼마나, 또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들꽃마을의 삶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가? 때로 현대 사회복지 환경이 함께 아파하는 태도를 방해하지는 않는가? 복지국가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도움은 시민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된다. 국가나 사회가 공공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게 더 많고 큰 성과를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실천에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린다면, 비오는 거리에서 우산 없는 사람에게 우산은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함께 우산을 쓰고 비를 맞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진으로 무너진 집 옆 컨테이너에서 함께 살고 있는 들꽃마을 식구들과 작별하고 나오며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이다.

1) 참조.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IX, 5

2) Artikel “Mitleid”, In: Historisches Worterbuch der Philosophie, Bd. 5, Sp. 1411.



## 예수님이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자!

### -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and with the Poor and Oppressed)

도건창(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 약자의 눈으로 보기

“인민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이 노래를 불러 주세요!”라는 판사의 질문을 통역하는 순간 옆에 앉은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는구나 싶어 통쾌하다.



이 곳은 프라이부르크 행정법원 난민자격 심사장이다. 내 앞 재판정 위에 판사가 앉아 있고, 나의 오른 쪽에는 법원서기가, 그리고 왼쪽에는 난민자격심사를 신청한 두 남자가 앉아 있다. 나는 판사를 돕는 통역으로서 판사가 난민자격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 북한 출신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가려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 1990년대 후반 대홍수로 북한 경제사정이 아주 힘들었고,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져 북한 출신 난민에게는 쉽게 난민 자격을 주었다. 먼 독일에도 북한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난민 신청자가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북한 난민 행세를 하며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국 그 두 사람은 북한 출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이 들었다. 법원 통역은 꿀 아르바이트다. 시급도 좋고 교통비까지 후하게 주기 때문에 두세 번만 해도 한 달 식비를 벌 수 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니 기업 관련 통역을 할 때처럼 말장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다. 왜 그럴까? “나는 누구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직업은 누구의 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고 요구하는가?”, “예수님이라면 누구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것인가?”하는 물음이 내 안에 갈등을 일으켰다. 독일국민이 낸 세금을 법률이 정한 목적대로 쓰기 위해 난민자격을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판사와 독일 국민 관점에서 보면, 두 명의 난민 자격 신청자는 자격 없이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이다. 난민자격 신청자 관점에서 볼 때는 가난한 고향을 떠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먼 나라로 와서 자신 손으로 일해 더 나은 기회 만들고 싶은 노력이 거절당한 것이다. “나는 누구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것인가?”라는 물음이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담고 있는 첫 요구다.

### 약자를 위한 도덕적 관심

그 후 한 중국 유학생에게 프라이부르크에서 기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난민수용소에서 북한 출신 난민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작정 그 난민수용소를 찾아가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십대 초반의 청년을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무표정했고 말수도 적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다. 두 번째 방문하면서 깍두기를 담아가서 함께 밥을 해먹었다. 만남이 거듭 되면서 수용소 밖으로 산책도 하고 바깥 식당에서 밥을 사먹기도 했다. 어느 날 라인 강변을 산책하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굽어보면서 두만강을 건너온 후 헤어진 자기 부모님과 동생 이야기를 했다. 독일로 망명을 할 수 있게 되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돈을 벌어야 가족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지나간, 아니 여전히 계속되는 아픔을 되씹는 그의 처연한 눈길이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만들었다. 외국 유학생에 불과한 내가 난민 자격심사를 기다리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몇 다리 건너 아는 분께 사정에 관해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그 청년이 북한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거절했다. 여름방학 때 귀국했다가 독일로 돌아가서 행정법원이 그의 난민자격신청을 거부했고, 그는 제3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청년처럼 사회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아파하며 돕는 일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요구하는 두 번째 요구다. 비록 그것이 기대하는 결과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 약자와 함께하는 “해방”의 노력과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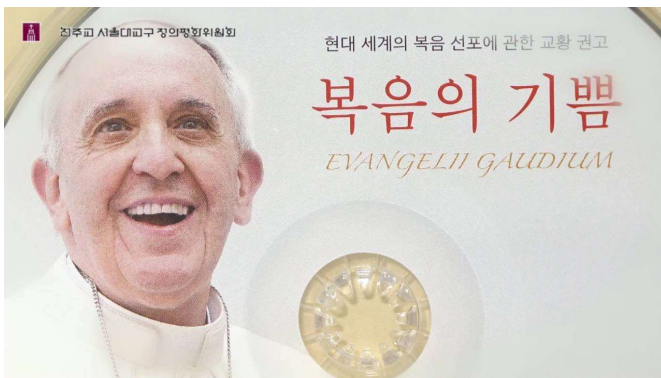
나를 비롯해 그를 찾아가던 다른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청년이 조금씩 달라졌다.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무표정하던 얼굴에 웃음기가 생겨났다. 우리와 대화도 나누고,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음식을 준비해 우리를 초대하기도 했다. 식료품 구입 같은 사소한 부탁도 했다. 나중에는 난민자격심사 준비과정과 탈락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도 해왔다. 조금씩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지 스스로 생각했다. 마지막에는 독일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자격심사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결정까지 한 것이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갔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세 번째 요구다.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펼쳐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돕는 것이다.

그 청년의 그런 변화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의논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가 늘어났고, 내가 그의 기대를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점점 잦아져갔기 때문이다.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은 그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마치 내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착각한 데에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사랑 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려 했다. 불편한 상황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내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상대방 탓이라고 하고 싶었던 것이다. 요즘도 자주 비슷한 유혹을 경험한다.

그래서 자주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왜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해야 하니?”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가난한 사람이 되시어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 곁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복음의 기쁨』 186항)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하느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실’ 정도로 하느님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고, 구원이 “거대한 제국의 변두리 작은 마을에 사는 보잘 것 없는 처녀가 말한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복음의 기쁨』 197항) 그래서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제2차 바티칸공의회『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8항)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실제로 진심으로 가까이 있는 것에서 출발”하며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강조한다(『복음의 기쁨』 199항)

그런 뜻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도덕적, 윤리적 권고를 넘어간다. 오히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보여준다.

(월간빛 420호) 사회복지 현장에서

## 더불어 살기 위한 존중(Respect)

글 도건창 세례자요한 |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소장



오스트리아 빈 카리타스학교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노인간호조무사 양성을 받았다. 급우들 가운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온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다. 이슬람 신자인 그녀는 이슬람 달력으로 아홉 번째 달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전통을 지켰다. 한 주간 3일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과정이어서 금식하며 일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녀에게 일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물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배가 고파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나눔에 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어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면 놀 놀거리를 찾던 그녀가 그날은 달리 보였다.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이슬람 신앙과 전통에 관해 물어보게 되었다. 그녀와 대화하며 이슬람에서는 종교의 신념이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현장실습을 하는 성 엘리자베스 요양원에서 같이 일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간호조무사 선배가 일하다 말고 짧게 이슬람 기도를 바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기도할 때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을 거들어주었다.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갔다.



성 엘리자베스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무렵 나는 독특한 말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명한 대답, 특히 거절이나 반대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웬만하면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문화 탓이었다. 덕분에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결정이 너무 더딘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것은 팀으로 함께 일해야 하고 언제든지 위급한 순간이 생길 수 있는 요양원에서는 좋은 습관이 아니었다. 고민이 되었다. 고치고 싶었지만 잘 안 되었다. 그때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나이지리아 출신 여성 동료가 나를 도와주었다. 팀 회의를 하다가 상급자나 선배 동료 질문에 내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녀가 “요한네스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은 선생님 의견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요한네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물어주었다. 그녀가 나의 문화 통역사가 되어준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름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만남도 깊어졌다.

사회복지의 현장에서도 다른 문화나 종교 관습을 가진 이웃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다.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처럼 다른 나라를 돕는 부서도 있고, 가톨릭근로사회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이주노동자나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가정을 돕는 일을 위한 전문기관도 있다. 그 기관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서로 다름이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적어도 다름은 더 긴 만남과 대화, 곧 더 긴 시간을 요구한다.



지난 대림특강 때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는 성경말씀에 대해 “친구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시간을 존중이라는 태도로 채워야 한다. 존중(尊重, Respect)이란 말마디가 가리키는 태도나 행위는 어떤 것일까? 존중이란 말의 영어 단어는 Respect이다. respect는 ‘뒤’나 ‘다시 한 번’을 의미하는 접두사 re와 ‘본다.’라는 뜻을 가진 spect를 합친 말마디다. 여기에서 ‘본다.’는 ‘우러러 본다(look up to)’는 의미다. 존중으로 번역되는 영어 respect는 지나쳐 버릴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해서 뒤돌아서 다시 한 번 우러러 보는 자세나 행동을 가리킨다.

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은 가톨릭교회 사랑실천조직(Caritas)이 다른 문화,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들을 위해 일할 때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로 존중(Respect)을 꼽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는 데에는 물질적 도움은 물론 전통, 종교와 같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념에 대한 경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국제카리타스는 여성을 교육시키지 않는 관습, 여성할례,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례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가톨릭교회의 이름으로 사랑실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필요한 돈이나 재물을 그들과 나눌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정과 경의 역시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미국에서 시민권운동을 하던 유색인이 Respect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 것은 백인들이 자신들도 동등한 인간으로 보아달라는 갈망과 요구를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카리타스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 서로를, 특히 더 약한 사람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문명’ 건설을 자기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 가치 참조.) 바로 그 때문에 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은 모든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옹호하는 종교 전통과 문화, 구조,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남아선호, 명예살인, 여성할례와 같은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문화에는 오히려 단호하게 저항한다.



모든 이가 차이를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의 기본토대는 상대방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그가 존엄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이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고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믿음과 희망은 스스로 존중받는 체험이라는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받기보다 틀렸다고 매도당하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희망이 영양실조에 빠져 버린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가 드러난다. ‘비록 네가 나를 이 죽음의 틀에 매달리도록 만들었다 해도 나에게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존중이 나와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도 더 쉽게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우리가 눈앞에 있는 나와 다른 한 사람과 그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할 때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존엄한 존재답게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다. 그것이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이 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실현해가는 길, 가톨릭 교회 사랑실천(Caritas)의 기본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깨우쳐 준다.

## 사람답게 더불어 살기 - 연대

도건창(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괜찮아요. 저 오빠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래요!”

마을도서관 도서관장님의 편안한 태도와 열정이 담긴 목소리에 빠져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 삶에 가져다 준 변화를 설명하던 참이었다. 도서관에서 사서보조 봉사를 하는 청년이 가끔 폴쩍 폴쩍 뛰며 소리를 지른다고 했다. 어느 날 방문 온 손님이 그가 소리 지르며 뛰고 있는 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보았다. 그 손님 눈에는 소녀의 천연덕스러운 모습이 신기했던 것이다. “애, 너는 오빠가 저렇게 하는데도 상관없어?” 그러자 그 소녀가 “괜찮아요. 저 오빠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렇게 해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뒹뒹고 소리 지르며 물건을 던지든지, 다른 사람을 밀치고 꼬집거나 깨무는 것은 자폐성 지적 손상이나 정신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주 보이는 행동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소녀는 다르게 행동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이 마을도서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힘을 보태온 장애·비장애 통합어린이집인 원장이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찾아보았다. “어릴 때부터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자라온 만큼, 우리 아이들은 휠체어에 탄 친구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교사들이 절대 장애·비장애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요. 누군가 '장애인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란 인식을 심어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장애인 친구를 불편해하게 되거든요.”<sup>2)</sup> 그 소녀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을 자주 접하면서 함께 커왔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그 청년은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저희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꿈꿉니다.”

앞에서 말한 마을도서관과 장애·비장애 통합어린이집을 세우고 이끌어 온 사람들은 스물여섯 해 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한 주택 지하에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열었다. 아동들과 지내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살던 마을에서 더불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마을 주민들과 만나고 어울리기 위해 어린이집 일과 후에 동네 아이를 위한 방과후 학교를 했고, 매년 공동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며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힘을 보탰다. 그들은 밑반찬을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께 배달했다. 조금씩 통합어린이집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생겨나,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비장애 아동들이 그

2) 조선일보 2015. 4. 14일자



어린이집을 찾고 있다.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학부모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마을도서관, 방과 후 학교, 청소년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마을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카페, 유기농 농산물 매장 등을 직접 설립했다. 차츰차츰 더 많은 마을주민들이 장애를 가진 이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보게 되고, 이해하는 폭도 커져 갔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커 온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에게 장애를 가진 친구도 “우리과 다른 게 없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잘 이해한다.”고 알려준다고 했다.

## 사람답게 더불어 살기인 연대(連帶, solidarity)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타인을 만나고 관계 맺으면서 말도 배우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배우고, 각자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그리고 가족, 또래, 이웃, 동료처럼 비슷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아가서는 자신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더 약한 사람들 처지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개입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을 연대(連帶)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경제성과와 쓸모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연대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지적 손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힘든 사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 일자리가 없거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복음의 기쁨』 54항)로 대하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 사회도 모든 사람이 사회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겪는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 만남을 장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특별한 전문가나 대단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연대의식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오직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공기, 물, 땅,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 선물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참조 제2차바티칸공의회『사목헌장』69항, 『복음의 기쁨』 188항) 내 재산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쓰여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가 더 큰 돈을 쓰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돌려주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도록 요청한다(참조 같은 책 189항). 그리스도인은 이 깨달음을 모든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미사 중에 고요하게 기도할 내 권리를 지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느님 앞에 자기 뜻을 표현하는 것을 위해 양보하거나, 누구에게든 진심으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일상의 태도도 연대의식의 실천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정당에게 투표하며 집값이 떨어져도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직접 후원하는 것 역시 훌륭한 연대의식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세상을 이룩하겠다는 공동 비전”(『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중 연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더 사람답게 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사람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길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실천이기 때문이다.

##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도건창(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물건을 사는 일은 늘 어렵다. 전자제품 매장에 냉장고를 사러 간 적이 있다. 크기와 용량, 형태와 디자인, 서로 다른 부가 기능과 다양한 가격의 냉장고 가운데에서 우리 집 공간, 용도, 분위기와 형편에 맞는 냉장고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며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냉장고를 원하는지, 얼마나 지출을 해도 되는지 등을 생각하다보면 머리가 아파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능숙하게 조합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아내가 위대해 보인다.

요즘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에게 돈이나 서비스 이용권을 드려서 원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게 전시되어 있고, 큰 탈이 없으면 제품 설명서에 적힌 성능을 내도록 표준화된 냉장고를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냉장고와 달리 미리 만들어 둔 샘플을 볼 수 없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기는 더 어렵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자가 목욕 전에 그 서비스가 자기 마음에 들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 없다. 사용설명서대로 작동만 시키면 정해진 온도로 냉각되는 냉장고와 달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때그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전문가라 해도 내담자가 자신을 열고 표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내담자가 최종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일대일 상담에서 국가 단위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모든 관계자가 함께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고르기 위한 Tip!**

첫째로 “이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도울 것인가?”라는 물음에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시설·기관의 서비스를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거동이 힘든 분 가운데 어떤 이는 다칠까 봐 가만히 누워계 시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다칠 위험이 있더라도 정원을 산책하며 하늘을 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도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같거나 비슷한지, 또 말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야 한다. 양쪽이 합의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아야 한다. 예컨대 당사자 존중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데에 무게를 둘 수도 있고, 당사자가 삶을 통해 익힌 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나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수도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선택 대상이 되는 시설.기관이 그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며,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이것은 해당 시설.기관 홈페이지나 리플렛에서 시설의 고유한 가치와 가치를 실현할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보고, 조직도와 직원 배치 현황, 프로그램 안내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첫 상담에서 그 시설.기관이 보이는 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면 더 낫다. 합의한 가치를 구현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개인 성향, 살아 온 삶의 역사나 가치관에서부터 좋아하는 음식, 옷 모양, 색깔과 같은 개인 기호, 현재 건강과 신체적 능력은 물론 심리적, 정신적 상태와 그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보를 더 자주, 더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공유하는 곳이 좋은 시설.기관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무엇을 목적으로 무슨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좋은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첫 조건이다.

두 번째로는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잠깐 하다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진심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 시설에서 말하거나 써 붙여 놓은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 중에 만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한 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안방까지 폐품과 쓰레기로 가득 차 누울 자리도 찾기 힘든 어르신을 알게 되었다. 집안을 모두 치워드리는 것은 어르신복지센터 과업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서 어르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안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당사자 동의와 협력 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어르신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매일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한 주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어르신과 대화하며 어르신이 물건을 모으는 이유와 그 물건들이 어르신께 가진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가끔씩 어르신께서 다칠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만 했다. 만남을 거듭하며 신뢰가 쌓여갔다. 여섯 달 뒤에 어르신이 먼저 집안을 정리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으셨고 자원봉사자를 모아 함께 그 집을 정리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시설.기관을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도움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품질 판단기준이다.

###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조건인 동시에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의 첫 원칙인 파트너십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다. 진심으로 실천하는 파트너십은 좋은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기본인 동시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5)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국제 카리타스 윤리강령은 카리타스 실천을 위한 첫 원칙으로 파트너십을 내세웠다. 파트너십은 “공유된 가치와 전략, 정보에 기반하여 합의한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투신”(『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원칙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직원과 자원봉사자, 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정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서로를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반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만 전문가라는 아집을 넘어 상대방의 요구, 감정, 전문성, 경험과 지혜에 진심으로 열려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돈을 내는 나는 갑이고, 돈을 받은 당신은 을이다.”, “나는 전문가고, 당신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가톨릭답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당신은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라는 식의 편가름이 아니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 선의를 신뢰할 것을 촉구한

다. 그래서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우리 센터 교육 참석자, 동료와 강사진, 그리고 관계 기관과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파트너십을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가? 파트너십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진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뉘우치며, 사과하고 개선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예수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가?

## 내후년이면 계획대로 기관 문을 닫을 수 있을 겁니다.

도건창(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 내년이면 계획대로 기관 문을 닫을 수 있을 겁니다.

1999년 온천도시로 유명한 바덴바덴시의 한 기관을 방문했다. 그 기관은 과거 프랑스군이 주둔했던 병영에 조성한 임대주택 단지에 있었다. 단지 주민들 출신 나라가 40여 개에 이르고, 언어, 문화도 다양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한 동네에 살게 된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이해해가며 더불어 살고,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카리타스 지역사회사업센터가 설치되었다. 지하실에서 탁구를 치거나 밴드연주를 연습하는 청소년들, 자녀양육에 관해 함께 의논하는 30~40대 여성들, 마을축제 준비회의를 하는 주민대표들 등 각자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5년 안에 주민들 스스로 이 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이 기관의 목표라고 했다. 그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는 칠팔십 퍼센트 정도 달성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1년 반 뒤에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사업센터를 운영하게 될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주민공동체가 현재처럼 발전해간다면, 내후년에는 주민들 스스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면 기관 직원들은 바덴바덴시 카리타스협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기관으로 옮기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우리는 5년짜리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채용되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잠깐 당황했다. 그 프로젝트의 성공이 직원들에게는 실직을 뜻했기 때문이다. 다시 물었다. “그러면, 관장님과 관장님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관장은 “우리는 채용될 때 그것을 알고 있었고,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사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훌륭한 경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이루어 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모범답안이었다. 거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기관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자신이 필요 없어진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황한 것은 내가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와 나눈 이야기를 생각하다 작년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동료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께서 해야 할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고민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누기를 했다. 그 동료는 “주민들도 함께 기뻐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가 한 말의 핵심은 “주민(당사자)”과 “평가”다. 원칙대로라면, 이 두 단어는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리키고 있다. 주민(당사자)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목표고, 평가는 그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 동료는 그것을 고민처럼 말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당사자 현실과 필요만으로 사업목표를 세우기 힘든 현실 탓일 수 있다. 당사자와 그를 매일 만나는 현장 사회복지사보다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정치인, 그 예산을 집행하는 상급기관이 사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공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복지기금도 해야 할 사업과 그 목표를 규정해서 제안하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할 기관을 찾는 경우가 잦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해 사업을 기획하지 못하고 돈을 지원해준다는 사업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업을 만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다보니 평가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이 되어 당사자 삶의 질 전체와 별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평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이 되고, 당사자는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일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교육을 다니다보면, 기관장이나 상급자가 교육장소 배치, 간식 준비, 교육진행자 섭외와 배웅까지 직접 챙기거나 세부사항까지 지시하고 담당자는 그것을 실행만 하는 경우를 본다. 그런 조직에 근무하는 동료들 얼굴은 대체로 어둡고, 토의를 해도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이야기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일이 없고, 그들의 제안사항은 대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다. 그 조직 안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결국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와 함께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 그 기관까지 자신의 일에서 소외되어 불행해진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주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가톨릭사회교리는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조성(Subsidiarity)을 사회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1931년에 반포된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사십주년』79항은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철학의 근본원리”라고 하면서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원리에 근거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고통 받는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사회 전체에 사랑의 문명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사회 세력의 활동을 관대하게 인정하고 지원하는 국가”(『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28항 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조성 원리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주장하는 이상이 아니라, 여러 나라 법률에 실제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사회법전 Ⅲ권은 “민간 청소년복지에서 인정받은 운영주체가 적절한 시설, 기관과 행사를 운영하거나 적기(適期)에 설치할 수 있는 한, 공공 청소년복지는 자기 정책을 포기해야”(독일 사회법전Ⅷ권 4조 2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동일하게 적절한 정책에서 당사자 관심사를 더 강하게 지향하는 정책에 우선권을 주고, 그 정책이 정책 구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게 되어 있다(독일 사회법전 Ⅷ권 74조 4항 참조). 국제 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체인 국제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 역시 자신들 활동의 원칙의 하나로 보조성을 들고 있다(『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원칙 2. 보조성). 그래서 가능한 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당사자, 실무자나 실무조직에 권한, 결정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그들 역량과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극대화시키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필요한 만큼, 필요한 동안만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점점 더 큰 자율성과 책임을 맡을 수 있게 역량

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르침의 기본 확신은 사회 속에서, 사회를 통해 자기 자신을 형성해가는 인간이 존엄하고 대체불가능하며 유일무이한 존재답게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교육을 하는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교육 참석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가, 아니면 줄이는가?



## 그의 몫을 돌려주는 일, 참여(Participation)

도건창(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 전공 교수)

“나도 미쳤지, 내가 이게 무슨 꼴이고!”

본당사회복지위원 교육 도중에 한 어르신께서 당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셨다. 그분이 오래 동안 이웃에 밑반찬을 가져다 드렸는데, 며칠 전 너무 속이 상했다고 하셨다. 어르신이 방문하는 집 가운데 아파트 4층에 사는 집이 있는데, 밑반찬을 가지고 가도 그 집에 사는 분은 통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며칠 전 밑반찬을 가지고 갔다가 한 할머니가 그 아파트 문 앞에서 다른 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계단 아래에서 잠시 쉬면서 쳐다보니 그 할머니가 집 주인이고, 손님은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밑반찬을 전해주러 오신 분 같았다.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연세도 당신과 비슷했고, 건강은 오히려 더 나아보이는 데 여러 곳에서 밑반찬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셨다. 손님이 가고 난 뒤 할머니에게 그동안 00성당에서 밑반찬을 가져다드린 사람이라고 인사하면서 열린 현관 문 안쪽을 보니, 마루에 다른 곳에서 보내온 밑반찬 보자기 2개가 더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속 상한 김에 “보니, 이 집은 밑반찬 안 갖다 줘도 되겠네요.”라고 불쑥 내뱉었고, 상대방도 “그러면, 그렇게 하이쇼. 누가 언제 갖다 달라 했나? 자기들이 가지고 왔지!”라고 대꾸했다. 그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한 어르신은 두 말 없이 들고 간 밑반찬을 들고 내려와 버렸다. 계단을 내려오며, ‘자기나 내나 연배도 비슷하고 몸은 나보다 더 생생한 것 같은데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남한테 반찬 얻어먹고 그러네. 나도 미쳤지, 저런 사람한테 반찬 전해주려고 아픈 다리 끌고, 잘하는 짓이다! 본당사회복지위원장도 그렇지, 집안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거나 하고 부탁하지, 나이 든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고!’하면서 실컷 원망했다고 하셨다. 어르신 마음 상하신 것도 안타깝고, 나눔을 통해 당사자가 소중한주인공인 자신을 체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랑실천이 도리어 상처만 주고받게 된 것도 안타까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두 분이 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분이 평소 서로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전에 밑반찬을 받는 할머니께 당신이 꿈꾸는 생활은 어떤 것이며,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여쭙어 본 다음에 필요한 도움을 찾았어도 이미 여러 곳에서 받는 밑반찬을 또 요청했을까? 봉사하는 어르신께서 밑반찬 배달이 할머니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셨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밑반찬 배달을 받는 할머니와 배달하는 어르신이 어떤 반찬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받을 지를 의논해서 함께 결정했다면, 두 분이 다투셨을까? 반찬을 배달하던 어르신이 합의를 할 때에 당신 사정을 설명하고, 할머니께서 1층에서 밑반찬을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물음에 대답을 하다가 밑반찬을 받던 할머니도, 밑반찬을 갖다 주던 어르신도 당신이 관련된 도움 관계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분 모두 이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 도움의 필요성과 방식에 관해 알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결정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도움 전체 과정에 당사자는 물론 모든 관계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사랑실천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곤경이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모상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당사자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도우려면, 첫째로 항상 당사자에게 여쭙어 보아야 한다. 도움을 계획하기 전부터 당사자에게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어떤 것인지 여쭙어야 한다.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인공이 된다. 당사자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도움을 일정 부분 스스로 결정한다. 도움을 실제 제공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약속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것을 같이 돌아볼 때에도 당사자에게 반드시 여쭙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보를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잘 여쭙어 보려면, 당사자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함께 찾거나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는 가능한 한 당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당사자에 따라 말로 하는 것이 나은지, 글로 하는 것이 나은지,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라야 할 지, 당사자가 익숙한 단어나 문장은 어떤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제공할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면, 무엇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정보가 중요한 지를 설명해 줄 필요도 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셋째로 함께 의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께 의논하기는 당사자 의견을 여쭙어 보는 것과 당사자 의견과 다른 자기 의견이나 사정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로 모든 도움 과정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자기 역할이 있을 때 당사자가 도움 과정에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말아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넓혀가는 방향으로 도움 관계가 발전해가야 한다. 도움관계에서 당사자 참여를 위한 노력은 더 쉽게 도와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사자와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 도움 관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참여는 “인간 존엄성의 표현이며, 인류 공동체에 대한 공동책임”이다.

국제카리타스는 참여(Participation)가 “인간 존엄성의 표현이며 인류공동체에 대한 공동책임”(『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원칙 3. 참여)을 의미한다고 보고 가톨릭다운 사랑실천을 위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참여가 인간 존엄성을 위한 표현이 되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누구의 말에 따라 이해하며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문화, 경제,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무이한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 기회를 막는 것은 그가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참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답게

살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참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존엄한 사람답게 도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간추린 사회교리』189항)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사회 전체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참여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가지고 있고 내놓아야 할 몫(part)을 그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 당사자 역량과 권한의 강화로 스스로 돕기를 촉진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도건창(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 전공 교수)

“이 부추 가져가, 올해 첫 소출이야.”

한 본당사회복지위원회의 모범사례를 들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생기 있게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분은 일찍 홀로 되셔서 시장에서 음식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웠다. 성인이 되어 직장에 취직한 아들이 정신분열증이라 부르는 조현병에 걸렸다. 할머니는 여든 가까운 연세에 아들까지 돌보셔야만 했다. 연로해 장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파지와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셨다. 할머니께서 살던 동네가 재개발 되면서, 대부분의 이웃이 이사를 가고, 10평 남짓 되는 할머니 댁도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 집 주변에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할머니 댁도 모아오신 고물과 파지로 가득 차 있었다. 본당 사회복지위원들이 동네 마실 삼아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집안 상황을 알고 나서는 국과 반찬을 마련해 할머니와 나누어 먹었다. 차츰차츰 서로 친해졌다. 어느 날 “할머니, 바깥에 있는 고물과 쓰레기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려도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여쭙보았다. 할머니께서 허락하셔서 본당 봉사자 몇 분이 폐기물은 버리고,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모아 할머니가 원하신 창고에 말끔하게 정리해 드렸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에도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할머니와 상의했다.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하셨다. 돌을 골라 내고 땅을 갈아 할머니께서 밭 만드는 일을 도왔다. 할머니는 밭농사 전문가였다. 절기에 맞게 부추, 오이, 그리고 파도 심었다. 반년이 흘러 본당사회복지위원이 반찬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뵈면, 할머니께서 “이 부추 가져가, 올해 첫 소출이야! 원래 부추는 맨 처음 것이 제일 맛있어. 보약이나 다름없어, 피를 맑게 해 줘”하시며 아들에게도 안 주고 아껴 둔 초벌 부추를 한 움큼 뜯어 나누어 주셨다. 본당사회복지위원이 “우리 집 부추는 이렇게 안 자라던데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세요?”라고 여쭙어보면, 할머니께서는 “퇴비는 언제 줘야 하고, 물은 이렇게 줘야 해.”하시며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그럴 때 할머니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당신이 수확한 채소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다. 그 본당 사회복지위원들은 할머니를 만나며 그분이 겪는 어려움보다, 강점에 더 관심을 가졌다. 밭을 만들지 말지, 어떻게 만들지는 할머니 스스로 결정하시게 기다렸다. 본당사회복지위원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도와드렸다. 할머니는 직접 채소를 가꾸셨을 뿐 아니라, 농사짓는 방법을 이웃에게 가르쳐주고, 그 소출까지 나누는 분이 되었다.

“이제 다시 노비생활로 돌아가야지.”

얼마 전 한 사회복지 동료의 페이스 북에서 충격적인 표현을 보았다. 행복했던 여름휴가 사진을 보여주준 후에 그는 “이제 다시 노비생활로 돌아가야지.”라는 말을 썼다. 늘 몸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던

그가 이런 글을 쓰도록 만든 이유가 궁금했다. 휴가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면, 왜 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이 없거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쳐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냉소와 체념은 아니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리에 떠돌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그는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가톨릭교회 사랑실천다운 모습일까? 가톨릭다운 사랑실천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 당사자 잠재력을 믿고, 변화를 소망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첫 사례에서처럼 당사자가 지닌 강점을 먼저 보고, 그가 자신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의 실행을 도와주는 협력관계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접근방법 가운데 하나가 임파워먼트(Empowerment)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회 전체 차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 임파워먼트는 다음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업무를 맡기면서 당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부합하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서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간섭 없이 재량권이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일을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넷째, 당사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기과업을 수행하는 방식, 절차, 그에 관한 관리와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당사자의 역량과 그 역량을 펼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일을 하려는 동기를 증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조직이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환경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은 가톨릭교회 사랑실천(Caritas)다운 실천을 위한 네 번째 원칙으로 임파워먼트를 제시하면서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의 연설을 인용하고 있다. “저는 시끄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중략) 그러나 저는 각 교구 안에서도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 편안하고 고착된 모든 것 (중략) 우리 자신 안에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에 대항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도, 학교도, 기관도 모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프란치스코 1세, 아르헨티나 리우데자네이로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 2013년 7월 25일).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은 왜 교회와 사회가 시끄러워지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분이 말하는 시끄러움은 어떤 것일까? 또, 그 시끄러움은 무엇을 위해 밖으로 번져나가야 할까?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사명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이 경탄”(회칙『인간의 구원자』, 10항)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 존엄성이 침해되어도 말할 수 없던 사람들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고, 교회도 그들과 함께 외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로 인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라는 초대가 아닐까? 또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사이에, 하느님 백성인 교회 구성원 사이에 서로를 함께 “사랑의 문명”을 건설해가는 동지로 소중하게 대접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수난 당하기 전날 저녁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중략)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2~15)라는 말씀을 남기신 분을 함께 뒤따르자는 권고가 아닐까?

## 가톨릭다운 사랑실천을 위한 독립성(Independence)

도건창(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 전공 교수)

**더 많은 사람의 참여 대 더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의 참여, 일하는 보람과 더 많은 임금?**

5년 전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 때문에 일반 직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노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다. 일하는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통한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는 시설도 있고, 직업생활을 위한 재활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시설도 있다.

세미나 중심 이슈는 첫째로 ‘장애를 겪는 사람의 노동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성과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제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당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구대교구 가톨릭 직업재활시설이 근무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 및 여가시간 프로그램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임금 수준은 평균보다 낮았다<sup>3)</sup>. 당시 우리나라는 1997년 환율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장애인직업재활사업도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당연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수익 창출이 더 강조되었다. 정책방향의 전환은 이해할 수 있고 필요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관한 관심이 낮아 판로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장애를 겪는 개인의 노동능력 향상보다 관공서나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물품을 자동화된 기계로 생산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면 장애를 겪는 사람은 자동화 공정의 보조자 역할을 주로 하고,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는 줄어들다. 소득은 올라가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 사회교리는 노동을 “개인의 본질적인 표현이며, ‘인격적인 행위’(actus personae)”(*『간추린 사회교리』* 271항)로 보아 작업의 성과보다 작업이 당사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을 구현하려면,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를 겪는 사람은 더 낮은 임금을,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감수해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첫 번째 고민이 있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교구 내 가톨릭 직업재활센터의 평균 참여자 수와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참여자 비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해온 장애인 주거시설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정책 중심이 시설에서 보호하는 데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기회를 넓히는 것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근로능력이 나은 경증 장애를 겪는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시작한 취지인 시설 거주 중증 장애인의 참여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근로기회를 가

3) 참조. 이운식, “천주교 대구대교구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과 전망”, 대구가톨릭사회복지시설협의회, 『천주교 대구대교구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과 전망』, 대구가톨릭사회복지시설협의회: 2013, 5-49.



진 그들을 또 한 번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노동은 인간에게 “하나의 책임이며 의무”(『노동하는 인간』16항; 참조『간추린 사회교리』274항)이기에 모든 사람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들에게도 그들의 능력에 따라 노동이 주어질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목표는 인격체로서, 노동의 주체로서 그들의 존엄성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회칙『노동하는 인간』22항)라고 했다. 또, 모든 사회구성원이 서로에게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 연대성 원리에 따라 근로기회가 적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규와 문화를 요청한다. 더욱이 가톨릭교회 사랑실천(Caritas)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원칙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가 더 적은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어디에서 균형점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슈였다.

**사회나 국가의 요구와 가톨릭교회 가르침 사이에 긴장이 생길 때, 교회 사랑실천(Caritas)이 독립성 원칙을 지키려면 요구를 식별할 눈, 판단을 실천할 용기, 이를 이루어 낼 교회 공동체의 협력과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요즘 거의 모든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며 국가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인간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람을 돕고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기관이 모든 사람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복지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당연하지만, 예산 지원 때문에 공공복지의 맹목적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때때로 가톨릭교회 사랑실천조직(Caritas)은 사회나 국가의 요구와 고유한 가치나 이념 사이에 고민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은 독립성(Independence)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카리타스 회원기구인 우리는 스스로 “운영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국내외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 그러하다.”(『국제카리타스윤리강령』 원칙 중 ‘독립성’)

독립성 원칙을 실제로 지켜 나가려면 가장 먼저 면밀한 식별이 필요하다. 면밀한 식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째,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 둘째,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근거해 ‘더 인간다운 삶’, ‘더 인간다운 세상’은 어떤 모습이라야 하며,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 무슨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각 목표가 가져올 좋은 점과 문제점을 저울질하고, 더 작은 희생으로 같은 목표에 이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넷째, 어느 목표에 더 우선순위를 둘지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 올지, 또 무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그렇게 내린 판단과 그것이 요구하는 행동규범을 모든 관계자가 받아들일만한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용기다. 사회와 국가의 요청은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 사랑실천 조직이 함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식별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때 가톨릭교회 사랑실천조직(Caritas)이 공동으로 자신의 예언자적 소명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용기 있는 결단은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톨릭교회 전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독립성 유지를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하기 어렵다. 사회와 국가의 압력이 거셀수록 더 그렇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원칙을 지켜나 가는데 필요한 것은 전문 역량이다. 아무리 면밀하게 식별하고 용기 있게 결단해도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절차

와 방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협력할 개인이나 집단과 소통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는 가톨릭교회의 사랑실천(Caritas)이 “곁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활동”(회칙『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29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독립성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단은 이 네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의미한다.

## 참 인간답게 우리 몫을 다하는 책무성(Stewardship and Accountability)

도건창(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 전공 교수)

### 사회적 책무성, 그 당연하고도 지키기 쉽지 않은 원칙!

몇 주 전 여러 교구 사회복지국 교육담당 실무자들이 3년 동안 같이 공부하며 마련한 교재를 가지고 공동으로 카리타스 기초교육을 했다. 그 교육에 참석한 한 동료는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나 일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도 사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행세한다면, 우리는 도둑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 동료는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이 마치 개인적 선행을 하는 양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베푸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되며, 사회에 책무를 지고 있음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말을 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한 문제를 떠올렸다. 한 국회의원이 사립 유치원이 지난해 감사를 받고 지적된 내용을 공개했다. 그 기간에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전체 6,153개 유치원 가운데 34.45%인 2,058개 유치원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인 1,878개 유치원이 법 규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거나 위반해 지적받았다. 대부분은 회계나 행정 상 서류 미비나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으로 시정, 주의 혹은 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치원 체크카드로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유치원 관계자도 있었다.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은 일부 사립 유치원의 잘못에 분노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공적 과업을 수행하고, 그 과업을 위해 받은 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가운데 일부에서 그 지원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사립 유치원 운영자나 설립자 측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이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며, 사립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설립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개인 재산을 써서 만든 것인데, 공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마치 사회 전체의 재산인 것처럼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일이라 본 것이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는 분노를 터뜨렸고, 항변했다. 공적 재원을 사용하는 조직이 사회에 책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며 법률에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언제나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그에 관한 견해도 서로 달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우리 가톨릭 조직은 책무성을 지니고 있는가?

책무성은 청지기다운 충실성(Stewardship)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먼저 청지기다운 충실성(Stewardship)은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맡긴 일을 하고 있기에 직책이나 과업을 받은 쪽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는 개인이나 내부 판단에 따라 일해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의 수혜자와 그 일을 맡기고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거나 지원한 시민, 사회, 교회 그리고 국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에 따라 일해야 한다. 다음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은 넓은 의미의 책무성과 좁은 의미의 책무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책무성은 책무를 맡긴 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의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 뜻에서 가톨릭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식과 태도를 갖추라는 요구를 받는다. 좁은 의미에서 책무성은 책무를 맡긴 측의 요구에 책무를 이행하는 쪽이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것을 요청한다. 이 응답 역량은 맡겨진 책무에 관한 책임의식과 의무감,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그리고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성과의 투명한 보고 및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기관은 물론이고 본당 사회복지위원회나 자원봉사단체도 대부분 외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거나, 후원을 받아 활동한다. 그 때문에 사회적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책무성은 대개 관련 법규나 각 조직의 정관, 회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니 충실히 지키면 된다. 다만 지난 호에서 다룬 독립성(Independence) 원칙을 고려하며 사회의 요구에 따르면 된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책무성에 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고민은 우리 모두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 아기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히 내맡겨 주시는 덕없는 신뢰가 일깨워주는 책무성

성탄전례는 구유 경배로 시작한다. 신부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두 손에 조심스레 받쳐 들고 불 꺼진 성당으로 모셔 온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은 당신 발로 걸어오지 않으시고 사람 손에 들려 우리에게 오신다. 강보로 감싸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떨어질 듯 우는 아기, 잠시 눈을 떴으면 무슨 탈이 날지 모르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울컥한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당신은 그리 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당신을 따라 살기보다 내 몸 편한 데로, 세상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살고 있는 저를 어떻게 믿고 당신을 온전히 우리 손에 내맡기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 손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듯 약한 아기 예수께서는 사람이 본래 하느님을 온전히 떠맡을 수 있을 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 이 메시지에 담긴 인간을 향한 한없는 신뢰가 신비롭고, 그 신비로운 신뢰의 무게가 우리 스스로를 새로 보게 만든다. 같은 예수님께서 최후심판에 관해 가르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셨다. 아기 예수께서 보여주신 무한한 신뢰를 떠올린다면, 이 말씀은 심판기준의 선포만이 아닐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신뢰와 기대에 관한 일깨움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그 말씀은 진정한 인간다움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관점에서 프란치스코 1세 교황께서 2013년 9월 로마 시내에 있는 난민촌인 아스탈리 센터에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동반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accountable) 우리의 주인과 같습니다.”라고 연설한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게 된다. 전문가로서든, 자원봉사자로서든 가톨릭 신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이 신뢰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웃사랑의 책무를 받는다.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해야 할 책무이며, 얼마나 무거운 책무인가? 우리 일을 후원하거나, 함께 삶을 나누어 봉사하는 이웃들,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책무는 이 기본책무의 바탕 위에 있다. 돌아보면, 나는 드물지 않게 책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꾸중을 듣거나 비판을 받았다. 낮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있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밉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아기 예수

껴서 몸으로 일깨워주신 인간다움에 담긴 고귀함을, 그 고귀한 가능성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기쁘고도 무거운  
책무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음에는 더 깊이, 더 제대로 이 책무를 질 수  
있기 위해서.